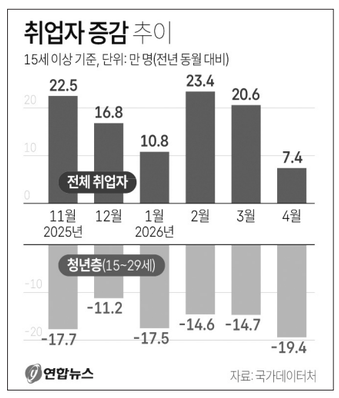
온기 도는 광주 고용시장…고용률 '61.7%' 올해 최고

지난달 취업자 1만2000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 견인
내수업종 타격에도 상승세
전국은 16개월만에 최소 증가



광주지역 취업자가 1만2000명 늘어나면서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보였다. 반면 전남은 취업자 수는 변동이 없었지만 실업자가 3000명 늘어나는 등 지표가 악화했다.

13일 국가데이터처 호남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4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고용률은 61.7%로 전년 동월 대비 1.3%p 상승했다. 취업자는 78만4000명으로 1만2000명 증가했다.

올해 광주 고용률은 1월 59.9%에서 2월(60.4%) 60%대로 올라선 이후 3월 61.2%, 4월 61.7%로 뚜렷한 호조를 보이고 있다.

전년 동월 대비로도 지난해 8월 보합을 기록한 이후 8개월 연속 상승세다. 지난해 9월 1.6%p, 10월 2.2%p, 11월 1.7%p, 12월 1.0%p 올랐고, 올해는 1월 0.5%p, 2월 0.6%p, 3월 0.8%p가 각각 상승했다.

실업자도 2만4000명으로 같은 기간 4000명 줄고, 실업률은 3.0%로 0.5%p 하락했다.

산업별로는 전기·운수·통신·금융업(1만4000명, 15.5%),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만명, 2.8%), 건설업(1000명, 1.7%)에서 취업자가 증가했다. 농림어업(5000명, -27.6%), 도소매·숙박·음식점업(5000명, -3.5%), 제조업(3000명, -2.4%)은 감소했다.

직업별로는 사무종사자(1만1000명, 8.5%),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7000명, 2.5%), 서비스·판매종사자(1000명, 0.4%)가 증가했고, 관리자·전문가(6000명, -3.6%)는 감소했다.

임금근로자는 1만4000명(2.3%) 늘었다. 이 가운데 상용근로자 1만5000명(3.3%), 임시근로자 2000명(1.7%)이 각각 증가했지만, 일용근로자 3000명(-10.2%)이 줄었다.

자영업자는 2000명(-1.1%)이 감소하면서 지난 2024년 10월 1000명 증가 이후 계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전남의 고용률은 65.9%로 전년 동월 대비 0.5%p 하락하고 취업자는 100만8000명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실업률은 2.3%로 0.3%p 상승했고, 실업자는 3000명 늘어난 2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산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만2000명, 3.3%), 제조업(7000명, 6.3%), 건설업(4000명, 5.4%), 전기·운수·통신·금융업(3000명, 3.9%)에서 증가했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1만7000명, -9.2%), 농림어업(9000명, -4.6%)은 감소했다.

직업별로는 관리자·전문가(1만3000명, 9.9%), 사무종사자(1만2000명, 10.5%)가 증가했고, 서비스·판매종사자(1만2000명, -5.2%),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 종사자(1만명, -2.8%), 농림어업숙련종사자(4000명, -1.9%)는 감소했다.

상용근로자는 1만8000명(4.6%), 일용근로자는 4000명(12.5%) 증가했지만, 임시근로자는 1만3000명(-6.2%) 감소했다. 이에 임금근로자는 총 1만0000명(1.6%) 늘었다.

다만, 자영업자가 1만3000명(-4.2%)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3월 6000명 증가 후 13개월 연속 자영업자가 줄어들면서 감소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며 청년 일자리 부진은 계속됐다.

청년층(15~29세)에서 취업자는 19만4000명 줄고, 고용률은 1.6%p 하락한 43.7%를 기록했다. 청년 고용률은 작년 8월(-1.6%p)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청년층 고용률은 2024년 5월부터 24개월째 내리막길이다. 2005년 9월부터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1월까지 51개월 연속 떨어진 이후 최장기간 하락세다.

전국 취업자의 경우는 2896만1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7만4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1월 10만명대에서 2·3월 20만명대로 커졌다가 다시 축소됐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은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16개월 만에 최소치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0%로 작년보다 0.2%p 떨어지며, 마찬가지로 2024년 12월(-0.3%p) 이후 처음 하락했다.

중동전쟁 영향으로 유가가 상승하고 내수 심리가 부진한 데다가 고용시장을 이끌던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크게 꺾인 탓으로 분석된다. 엄재용 기자 djawodyd0316@

광주시는 13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프뢰벨행복나누기㈜, ㈜디웍스, ㈜모바휠, ㈜유니유니, ㈜헬로프렌즈와 '광주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 AI기업 5곳 유치…시민체감 AI실증 강화

교육·행정·모빌리티·안전분야 선도기업과 업무협약

광주시는 13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프뢰벨행복나누기㈜, ㈜디웍스, ㈜모바휠, ㈜유니유니, ㈜헬로프렌즈와 '광주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단순 기업 유치를 넘어 기업들이 보유한 인공지능 기술을 광주의 공공 인프라와 시민 서비스에 직접 적용하는 '실증형 협력'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시는 협약 기업들에게 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행정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산업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 협약 기업들은 지역 내 기술 협력과 실증사업 참여 등을 통해 광주 인공지능(AI) 산업생태계 활성화에 힘을 보탠다.

프뢰벨행복나누기㈜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접목한 영·유아 디지털 학습 서비스를 개발 중이며, 지역 아동 대상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디웍스는 생성형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멀티모달 기반 AI 에이전트 기술을 활용해 문서 작성과 데이터 분석, 업무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향후 공공·헬스케어·복지 분야 인공지능 전환(AX) 실증사업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모바휠은 음파 기반 인공지능 센서를 활용해 블랙아이스와 침수, 포트홀 등 위험 노면을 실시간 감지하는 도로안전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으며,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 실증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유니유니는 영상 촬영 없이 센서를 통해 낙상과 이상행동을 감지하는 비영상 기반 안전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헬로프렌즈는 검색증강생성(RAG) 기반 인공지능 챗봇 기술을 활용해 외국인 비자·체류·행정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 중으로, 지역 외국인 지원기관 및 대학과 협력해 상담 챗봇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승홍 기자 photo25@

콘진원, 국민은행과 K-콘텐츠 지원 업무협약

10억원 특별출연 총 200억원 규모 보증

문화체육관광부(최휘영 장관)과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이하 콘진원)은 13일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KB국민은행과 함께 총 200억원 규모의 'K-콘텐츠 생산적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사업화에 이르는 전 과정의 보증 지원을 강화해 국내 콘텐츠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의 K-콘텐츠산업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 기관은 앞으로 3년간 콘텐츠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

콘진원은 콘텐츠 가치평가를 통해 우수 콘텐츠기업을 발굴·추천하고, 국민은행은 중소 콘텐츠 기업 지원을 위해 10억원을 특별 출연한다. 이를 바탕으로 신보는 콘진원이 추천한 콘텐츠기업에 대해 국민은행 출연액의 20배에 해당하는 총 200억원 규모의 맞춤형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콘텐츠 기업의 제작비 및 운영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콘진원은 국내 콘텐츠산업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권과의 협업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 3월 30일에는 농협은행, 하나은행과 각각 특별출연 협약을 맺고, 특화보증의 공급 규모를 확대했다.

콘텐츠기업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됐다. 콘진원은 지난 3월 31일 기존 신보와 기술보증기금에 이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력해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콘텐츠 수출보증 이차보전' 제도를 최초로 도입했다. 이로써 수출 역량을 갖춘 기업은 보증 지원뿐 아니라 이자 부담까지 덜어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나주=조함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농협 광주본부는 최근 본부 2층 휴라운지에서 '2026년 상반기 농협발전 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

농협 광주본부, 상반기 농협발전 상생협의회

조직 간 협력 강화·생성형 AI 교육 통해 소통문화 확산

농협 광주본부는 최근 본부 2층 휴라운지에서 '2026년 상반기 농협발전 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과 범농협 계통 조직 간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유연하고 협력적인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구현이라는 공동 목표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협의회에는 이철호 농협 광주본부장을 비롯해 범농협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조직 간 소통의 벽을 허물고 유대감을 높이기 위한 '농심천심 찐친 만들기' 팀빌딩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또 디지털 전환(DX) 시대 흐름에 맞춰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과정과 NH UP스토어 교육도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디지털 활용 방안이 공유되며 직원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사업별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농업인과 농촌을 위한 실질적인 상생 방안, 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이철호 농협 광주본부장은 "본격적인 영농철로 바쁜 시기에도 범농협 상생과 협력을 위해 함께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농업인에게 힘이 되는 상생의 농협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

유탑그룹 계열사 3곳
기업 회생절차 재신청

최근 법원으로부터 회생 불가 결정이 내려졌던 유탑건설 등 유탑그룹 계열사 3곳이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다시 신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회생법원은 유탑건설, 유탑디앤씨, 유탑엔지니어링 등 유탑그룹 계열사 3곳으로부터 지난 8일 회생절차 신청을 접수했다.

사건을 맡은 광주회생법원 파산1부(김성주 법원장)는 지난 12일 해당 기업들의 재산 처분 등을 제한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첫 심문기일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서울회생법원 회생16부(원용일 부장판사)는 유탑건설과 유탑디앤씨, 유탑엔지니어링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었다.

재판부는 "사업을 계속할 때보다 청산가치가 더 크다"며 관련 법률에 따라 회생 절차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교육청 금고=농협 독점' 공식 깨지나

전남광주통합시교육청 출범 변수…교육부 판단 '촉각'
연말까지 임시 운영기관 선정 절차…7조667억원 규모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추진되면서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 금고 운영 체계에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농협은행이 양 교육청 금고를 사실상 독점해왔지만, 통합 특별시교육청 출범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3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양 기관의 금고는 모두 NH농협은행이 운영하고 있다. 금고 운영기관은 4년 단위 입찰로 선정되며, 현 계약은 오는 2027년 12월31일까지 유지된다.

다만 오는 7월1일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출범이 예정되면서 금고 운영기관 역시 새롭게 지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올해 본예산 기준 광주시교육청 2조8257억원, 전남도교육청 4조4410억원 등 총 7조667억원 규모의 자금을 관리하게 되는 만큼 금융권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시기상 통합 직후 곧바로 새 금고를 선정하기는 쉽지 않아 올해 말까지는 농협은행이 임시 운영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교육부가 행정안전부의 통합 지침에 맞춰 특별시교육청 금고를 별도 지정하도록 결정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특별시청 금고를 임시 운영할 금융기관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어 10월에는 2027년부터 4년간 특별시청 금고를 맡을 기관을 다시 지정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같은 방식을 택하면 특별시교육청 역시 오는 10월께 차기 금고 운영기관 선정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연간 21조원 규모의 광주시·전남도 재정에 정부의 통합 인센티브 5조원이 더해진 약 26조원 규모 특별시청 금고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 교육청 금고 입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농협은행의 단독 입찰 관행이 깨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광주·전남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특별시교육청이 출범하더라도 올해 말까지는 기존 농협은행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향후 교육부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될 금고 운영기관 입찰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